

“천만도 가능” 침체 한국영화 미소 되찾아준 ‘극한직업’



성수기 부진으로 위기의식이 팽배했던 한국영화가 모처럼 웃었다. 코믹영화 한 편이 어두워지던 한국

시장 독식하며 개봉 5일 만에 300만 돌파...천만 기대감 솔솔

27일 개봉 5일 만에 관객 300만을 돌파하며 한국 영화시장에 서광을 비추게 됐다. 지난해 추석과 연말을 겨냥해 개봉한 대작들이 잇달아 무너지고 흥행한 영화가 몇 안 될 정도로 침체된 한국영화의 부진을 한 번에 만회했다.

‘극한직업’의 폭발적 흥행은 개봉 첫날부터 돋보였다. 23일 36만 관객으로 출발하더니 25일 100만을 넘어섰고, 주말 이틀간 203만을 추가하며 개봉 5일 만에 누적 관객 319만을 기록했다. 관객들의 웃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켜줬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주말 관객 증가율이 평균치를 훨씬 웃도는 데다 초반 흥행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설날 연휴로 이어질 경우 천만 가능성도 잠쳐지는 분위기다. 한국영화의 패배감을 바꿔놓았다는 점만으로도 큰 성과다.

▲ 영화계에 주는 설날 선물

‘신과 함께’ 시리즈로 전만 영화를 두 번이나 제작한 리얼리즘

체스 원동원 대표는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는데, 작년 추석부터 연말까지 한국영화의 대작들이 줄줄이 흥행에 실패하고 영화계 전반에 위기가 팽배해지고 영화계 플레이어가 위축되고 긴장하고 불안해하던 이때 ‘극한직업’이 엄청난 흥행을 보여주면서 분위기를 바꾸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영화산업을 잘 나갈 때 흥행하는 건 시장에 전기를 마련하지는 못하는데, 산업이 위축될 때 흥행은 플레이어를 물론 자본에게도 여전히 영화산업이 괜찮다는 확실한 시인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극한직업’의 흥행이 반갑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흥행이 영화계의 설날 선물과도 같다고 덧붙였다.

사실 지난해 제작비 100억 이상 들어간 대작 한국영화가 거의 대부분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면서 투자 위기가 엄습했다. 50억~80억 제작비가 들어간 중·저예산 영화는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흥행하는 것과 대비됐다.

200만 도달이 어려운 분위기다

▲ 독식 이어지면 천만 가능

흥행분석사이트 ‘흥행판’을 운영하고 있는 이하영 전 시네마시비스 배급어사는 “말모이 나 ‘내안의 그놈’은 겨울 시즌 영화 중 한편이라도 제대로 흥행을 치고 1월로 넘어 왔다면 그 범업된 시장에서 흥행을 기대해 볼 수 있었는데, 겨울시장 침체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 아쉽다”고 평가했다.

‘극한직업’ 흥행에 대해서는 설 연휴 2주 전 개봉은 배급사 입장에서 건넵어 아주 애매한 주로 일종의 도박이 될 수도 있다’며 “잘 되어도 설 연휴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가 문제가 되고, 후시라도 개봉을 했는데 개지면 설 연휴 맛도 못보고 바로 극장에서 내려가기 때문인데, 과감하게 선택해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살짝 소리만 질러대도 손님이 모이니 산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코미디 장르다 보니 설 연휴 시장까지도 욕심을 낼 수 있는 영화”라며 “설 연휴까지 이런 독식을 유지한다면 천만도 가능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리갈하이’ 친구, 시청자 사로잡을 능청美

배우 친구가 JTBC 새 금토드라마 ‘리갈하이’ (극본 박성진, 연출 김경현)로 시청자들과 친하게 만날 예정이다.

친구가 ‘리갈하이’에서 괴물급 변호 실력을 가진 승률 100% 괴짜 변호사 고대립 역으로 시청자들과 만난다. 고대립은 “짐의 돈 주고 사는 거야. 돈을 가져와, 그럼 이게 해줄게”라는 말을 서슴치 않는 인물이자 오만 덩어리로 보여도 전혀 개의치 않는 독특한 캐릭터.

이에 선 굵은 매력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친구가 피할 욕망 1번지 고대립 변호사의 모습이 궁금

증을 증폭시키는 가운데, 예미 시청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친구포 ‘리갈하이’ 관련 포인트 3가지를 소개한다.

● 친구와 고대립의 평행이론=자신감

먼저, 연기 변신에 확신을 가진 친구와, 한 번도 패소하지 않은 고대립의 “자신감이 있다. 친구는 자신만만 고대립은 “코믹의 단계를 넘어, 배우로 살아오면서 새로운 연기에 도전 한다는 의미가 있는 캐릭터”라 소개하며 고심 끝에 선택한



작품인 만큼 연기 변신에 남다른 각오를 보였다.

● 친구라는 새로운 장르의 개척을 앞두다

기존의 이미지를 벗어나 ‘리갈하이’로 첫 코믹 연기에 나서는 친구. 시청자들이 받아들이기 편하도록 캐릭터에 자신의 능청스러움과 인간미를 적절히 버무리는 완급조절을 하고 있다고 이에 따라 정신이 번쩍 드는 액트 폭력과 주변 사람들의 속을 뒤집는 알기움에도 웬지 통쾌하고 유쾌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매력적인 캐릭터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 숨은 1인칭에 친구스러움을 장착하다

‘섬세함 장인’ 친구가 시청자들에게 ‘리갈하이’를 선보이기 위해 숨은 1인칭까지 제대로 준비에 나섰

다. 현대적인 감성을 입혀 넥타이 핀, 핑크치프, 럭셔리한 시계로 스타일리시한 패션을 추구하는 것은 물론, 돈과 승리를 끌어모으려는 뜻의 ‘갈고리 머리’ 스타일까지 더해 고대립을 완성한 것.

공개된 예고편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여기에 독특한 억양, 과장된 액션, 많은 양의 대사들 래퍼 수준으로 전달하기 위해 대사의 템포를 가져가는 작업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친구는 캐릭터에 한국인의 속성까지 녹여내 극의 볼거리를 풍성하게 채울 예정이다.

이렇듯 리얼한 에피소드로 새롭게 탄생할 ‘리갈하이’ 속 친구의 유쾌한 변신은 오는 2월 8일 금요일 밤 11시 만나볼 수 있다.

‘슈돌’ 30주 연속 日예능 동시간대 시청률 1위 의미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30주 연속 동 시간대 시청률 1위를 달성했다.

28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1월 27일 방송된 KBS 2TV ‘해피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이하 ‘슈돌’) 262회 너에게 사랑을 배웠어 편은 전국기준 시청률 11.6%를 기록하며 동 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슈돌’ 262회와 같은 시간 방송된 MBC ‘미스터티 음식쇼-복면가양’은 평균 7.1%(1부: 5.5%, 2부: 8.7% 전국), SBS ‘런닝맨’은 평균 5.2%(1부: 4.4%, 2부: 6% 전국) 수치를 기록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슈

돌’의 거침 없는 시청률 1위 행진이다. 1월 27일 방송된 262회를 기준으로 30주 연속 일요 예능 동 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 중인 것.

시청률 격전지 일요 예능에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동 시간대 1위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슈돌’의 변함없는 저력, 힘을 느낄 수 있다.

이날 방송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장면은 나온, 건후 남매가 차지했다.

이날 나온, 건후 남매는 주호 아빠와 함께 부산여행을 즐겼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여행은 내내 좌충우돌, 급기야 생애 첫 지하철을 탄 나온이가 주호 아빠의 실수로 애착기방을 지하철에 두고 내리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나온이는 금세 눈물을 그치고 아빠와 의젓하게 가방을 되찾았다.

그렇게 가방을 되찾은 나온, 건후 남매는 주호 아빠와 저녁 식사를 위해 식당을 찾았다.

그 곳에서 큰 상을 머리에 이고 옮기는 식당 할머니를 발견한 나온이는 걱정스레 바라봤고 주호 아빠에게 대신 상을 옮겨달라고 귀여운 부탁을 했다.

결국 나온이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할머니가 아빠 박주호는 큰 상을 직접 머리에 이고 손님들에게 옮겨 큰 웃음을 자아냈다. 그렇게 상을 옮긴 뒤 어느 때보

다 맛나게 음식을 먹는 나온, 건후 남매와 주호 아빠의 모습은 분당 시청률 16.4%(전국)를 기록하며 이날 최고의 1분을 장식했다.

‘슈돌’은 아빠와 함께 하며 성장하는 아이들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아이들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은 시청자에게 행복한 즐거움을 안겨준다.

뿐만 아니라 무럭무럭 자라는 아이들을 통해 뿌듯함과 훈훈함까지 느낄 수 있다. 때로는 불굴한 감동도 선사한다. 이런 측면에서 ‘슈돌’은 세대불문, 성별불문 다양한 시청자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30주 연속 동 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 중인 ‘슈돌’. 앞으로도 계속될 ‘슈돌’의 시청률 1위 행진이 기대된다.



윤준형, 31일 신곡

‘빈털터리’ 발매

윤준형이 새로운 디지털 싱글 ‘빈털터리’ 발매를 예고했다.

28일 소속사 어라운드어스는 오는 31일 오후 6시 윤준형이 디지털 싱글 앨범 ‘빈털터리’를 발매한다고 밝혔다.

‘빈털터리’는 프로듀싱 팀 Good Life의 작곡과 윤준형이 작사에 나섰다. 서르리를 기반으로 한 재즈 합창 장르. 사랑 하나에 전부를 건, 그래서 이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남자의 슬픈 이별을 담았다.

오늘의 순세 2019년 1월 29일 화요일 (음력 12월 24일)



▶ 쥐띠 3, 4, 8, 12월생은 가정이 편안해야만 만사가 순조롭다. 아무리 좋은 진수성찬도 마음이 불편하면 맛있게 먹을 수가 없다. 가정의 화목을 제일로 삼고 화합함이 좋겠다. 애정에는 방해자가 있을 듯하니 비, 사, 오 성씨는 남쪽 남, 녀 조심하라.



▶ 소띠 어떤 일든 너무 깊이 파고들면 주위 사람들까지 피곤해진다. 지나쳐도 되는 일은 신경쓰지 않는 것이 건강에 좋을 듯. 1, 2, 3월생은 투자해놓고 빛은 늘고 있으니 현상유지가 어렵구나. 더욱 내일을 기할 것. 푸른색 계통 옷이 길하다.



▶ 호랑이띠 한 가지 일이 잘못됐다고 해서 모두를 포기한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과 직업이 있다.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승패가 있겠다. 3, 4, 10, 12월생은 원수이, 개미와 함께 하는 일은 순조롭게 풀릴 듯.



▶ 토끼띠 활동에 한계가 있다. 무리하다가 건강을 해칠 염려 있다. 잠시 차분하게 휴식을 갖는 것도 좋을 듯. 포부만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게 현실. 지혜를 모아 노력하라. 불가능은 없다. 그, 자, 승 성씨의 조언을 참고해 하는 일 추진하면 길하다.



▶ 용띠 그, 비, 르 성씨는 목적이 있다면 결단성이 필요할 때. 감정만 앞세우지 마라.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를 미워해서는 성사될 일이 순조롭지 못하다. 2, 4, 10월생은 자기 사랑을 남에게 빼앗길 수 있다.



▶ 뱀띠 나, 오, 자 성씨는 자신을 너무 비판하지 마라. 과신도 하지 말고 주위 사람들의 충고를 고맙게 받아들인다면 어려운 일이 순조롭게 풀릴 듯. 1, 5, 9월생은 본인 마음을 스스로 달래라.



▶ 말띠 자존심을 세우지 말고 유대관계를 최대한으로 한다면 직장에서 좋은 소식이 있겠다. 떠난 사람 생각보다 현 위치에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할 때. 그, 모, 자 성씨는 의연한 자세로 때를 기다려라. 서북쪽에서 도움 온다.



▶ 양띠 요행을 바라지 말고 힘써 노력하라. 남의 것 탐내면 내 것부터 손실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분수를 알고 자신의 진로를 선택할 때. 5, 9, 11월생은 상대를 진심한 마음으로 대하면 멀어졌던 사람도 귀인이 될 수 있다. 투기는 불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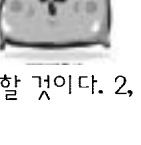
▶ 원숭이띠 대부분의 정만은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다. 그러나 혼자 저지른 일때문에 학소연하니 부모, 형제에게 걱정만 줄 뿐. 마음 편치 않다. 사, 자 성씨는 이기적인 성격을 버리고 이끌어 갈 때 추진하는 일 대성할 수 있다.



▶ 닭띠 이것저것 끝맺을 없이 천박지축으로 흔들린다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결단성 있게 한 가지 목적이 있으면 끝까지 결심 보아야 성공할 수 있다. 서드르리 마라. 북, 동쪽에서 도움을 듯. 사, 오, 자 성씨는 아이들 건강 주의.



▶ 개띠 자기의 몫을 빼앗길 수도 있으니 남의 의견을 따르기도 않는 자기주장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져라. 자기 앞길도 알지 못하면서 남의 일 걱정하고 있거나. 변동은 어리석은 일. 그러나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



▶ 돼띠띠 어느 누구든 인생에 대해 조언을 해줄 수 있어도 대신 알아줄 수는 없다. 비판하고 있지 말고 올바른 길을 찾아라. 남의 것 넘보지 말고 현 위치에서 최선을 한다면 성공할 것이다. 2, 4, 10월생은 유훈의 손길은 뿌리쳐라.